

“이민자들, 사회에 동화되려는 최소한의 노력 보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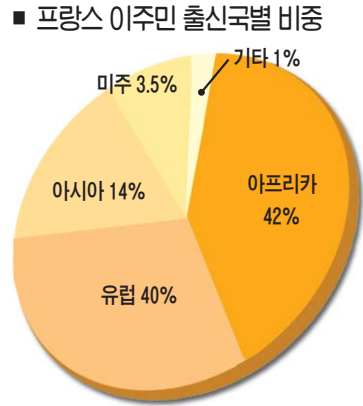
2부- 해외 다문화 현장을 가다

⑩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

파리=글·사진 최경호기자

“열린 마음으로 ‘다른 것’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때 올바른 다문화사회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노력 여부가 말로 다문화사회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프랑스 파리의 몽투즈(Montrouge)에서 만난 이화열(여·45)씨. 이씨는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틀레랑스’(tolerance·관용)를 꼽았다. 또 프랑스 사회는 ‘틀레랑스’ 정신에 입각해 ‘다문화’에 대해 포용적인 사회체제를 갖췄다고



“덜 가진자에 더 많이” 불평등 해소에 중점 이주 2·3세대들 종교·문화적 이질감 극복해야

강조했다. 다만, 공동의 사회체제에서 벗어난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모든 구성원이 출신 국가나 종교적 차이와 관계없이 사회의 공동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1996년 프랑스 유학 중 프랑스 재경부에서 에널리스트로 활동하던 올리비에 르그랑(51)씨와 결혼했다. 딸 단비(13·프랑스명 에글린)와 아들 현비(9·오렐리아)를 두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파리지역에 이어 최근 자녀와의 파리 생활을 담은 에세이집 ‘마담 너무 사랑해’를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목의 ‘사랑’ 발음이다.

이씨는 “프랑스는 오랜 이주 역사를 거쳐오면서 모든 구성원을 평등하게 대하는 자제가 사회체제로 굳어졌다”며 “이는 다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을 존중하는 ‘틀레랑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심각하게 우리 가정이 ‘다문화가정’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가족 모두가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회나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도 똑같은 프랑스 국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녀는 지난 2005년 ‘방리유(Banlieue) 소외 사대’ 이후 표면화된 이주민들의 차별 문제에 대해선 ‘이주민’이란 관점이 아닌,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소외가 이주민들의 주도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오랜 빈곤과 정서적 격차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프랑스는 어느 국가보다도 다문화 가정

에 대한 교육과 경제적 지원정책이 잘 마련돼 있다”며 “이같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국가와의 ‘보이지 않는’ 계약을 준수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 자녀의 사회 적응과 이들을 포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이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동화’(assimilation) 전략을 펴고 있다.

프랑스에서 본격적인 다문화 교육이 전개된 것은 1970년대로 거슬러올라간다. 1960년대 이후 급증한 이민자와 자녀들의 ‘동화’ 문제와 학교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주민이나 이슬람계 가정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들은 주로 빈민지역에 모여 살며 ‘게토’(ghetto·이주민 집단 주거지화) 현상을 초래했다. 또 이들의 학교 폭력과 학업 포기 등은 프랑스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특히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 정책은 2005년 ‘방리유 소외 사대’를 계기로 크게 변화했다. 이주민 계층이 주로 참가한 소외 사대 이후 정부의 다문화 정책 자체가 폐쇄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2006년 이주민들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거주 및 국적취득의 제한’과 ‘가족제 결합조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나 이슬람계 출신의 이주자 및 이주 2, 3세대들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들은 정부의 기회균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6년 프랑스 유학 중 현지 남성과 결혼한 이화열(45)씨가 휴일을 맞아 남편 올리비에 르그랑(51)씨와 딸 단비(13·프랑스명 에글린·중3)랑, 아들 현비(9·오렐리아·초5)군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05년 소외 사대 이후 ‘차별 철폐’와 ‘빈민층을 위한 고용촉진’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문화적·종교적 이질성이 큰 이들 이주계층의 학업포기와 학교 폭력, 빈민 청소년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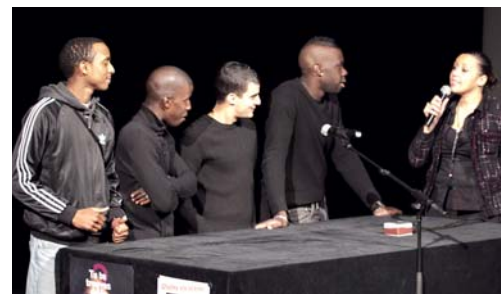
한편, 프랑스는 전체 인구 6400여만명의 9% 수준인 600여만명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출신국별로는 아프리카 출신이 42% 수준이며, 유럽(40%), 아시아(14%), 미주(3.5%) 등의 순이다. 아프리카계 이주민 중 대다수는 알제리와 모로코 출신이며, 아시아계는 터키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출신이다.

이주민은 ‘우선 교육’ 대상

프랑스는 이주 청소년 및 이주민 가정 2, 3세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의 프랑스 사회에 대한 적응과 동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저한 ‘평등’ 원칙 하에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공교육제도에 있어 인종이나 종교 등 개인적인 특성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은 보통·의무·무상교육의 프랑스 교육 제도 하에서 프랑스 시민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 이주민 자녀들의 학업 및 교육 수준은 기존 프랑스인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1981년부터 ‘덜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선교육지대(Priority Education Zone·ZEP)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만 3세부터 유치원 지원 ▲조기교육 장려 ▲언어 습득 및 숙달 중점 교육 ▲교사교류, 보충수업 등 상급 학교로의 지원 제공 등을 통해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최근 파리 외곽도시인 ‘클리시 수 부아(Clichy-sous-Bois)’ 시청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의 밤’에서 참가 대학생들이 프랑스와 지역의 현안 등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또 1984년까지 프랑스 전역에 ‘이주민 자녀 학교 적응을 위한 정보센터’(CEFISEM)를 설치했다. 이 곳에서는 이주민 가정 2세들의 빠른 불어 습득과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문화 자녀들의 프랑스 문화 이해와 적응을 돕고 있다.

이후 ‘CEFISEM’은 2002년부터 ‘이민자와 비정착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육센터’(CASNAV)로 대체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CASNAV’는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과 지원 ▲이주 가정을 위한 학교 입학 정보 제공 ▲지역 교사와 일반인 대상의 다문화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 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출신지·부모 직업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 ‘배울 권리’ 동등”

크레테이 교육청 파스칼 잘라라씨

“모든 이민가정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프랑스 다문화 교육정책의 핵심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최적의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 외곽지역인 크레테이(Creteil) 교육청의 파스칼 잘라라(51·Pascale Jallerat)씨는 “다문화 교육의 관건은 ‘평등’한 교육 조건 속에서 학생과 교사가 신뢰를 쌓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파스칼씨는 교육청 산하 ‘이민자와 비정착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위한 교육센터’(CASNAV)의 중등과정(적응반) 책임자를 맡고 있다.

파스칼씨는 “교육센터는 교사와 일반인들에 대한 다문화 관련 교육을 통해 이주민가정 자녀들이 원활하게 불어와 프랑스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 센터는 학생들에게 차립심을 키워줌으로써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교사양성과 학생들에 대한 시험 출제, 교수법 개발 등을 하고 있다”며 “모든 업무가 이주민 자녀들을 프랑스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우리는 교사들에게 모든 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언어는 물론, 모든 과목에서 학생들의 수준과 개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에 맞는 교수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은 출신지나 부모의 직업 등에 관계없이 16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평등하게 ‘배울 권리’를 주고 있다”며 “이는 공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로, 불평등 여부 불문하고 모든 아이들은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녀는 “프랑스는 중점 다문화교육 중 하나였던 이중언어교육을 폐지하는 등 오랜 이민 역사만큼이나 실패와 성공을 반복해왔다”며 “한국도 열린 마음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편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앙에이플러스 기숙학원

확장 개원

대한민국 최저가

당당하게 일어서라!

수능 **초**보 전인강 **무**료

개강 12월27일[월]

2012 대입 정규 선행반

고개속이지 말고, 어깨 쪽 펴고 당당하게 일어서라!

대한민국 최저가 119만원

초보닷컴 회원은 게시판에 이름과 아이들을 남겨주세요

문의 전화 **02-3431-820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97-14호 [서울 캠퍼스]

041-862-3332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6-2 [세종 본원]

EBS 및 수능초보 인강의 최강의 강사진을 소개합니다

모집대상 : 예비중1,2,3 예비고1,고2,고3학생

교육기간 : 2010 12월 29일(수) - 2011 2월 1일(화)

반평성 : 학습평가시스템을 통한 능력별 반평성

중앙 **A+** 기숙학원
Joongang A+ Gijukhakwon
www.jaa1.co.kr